

“상품 싸게 사고 평창올림픽 가자” 백화점업계 올 첫 정기세일

●광주신세계

아우터·리빙페어 최대 65% 할인
트레디셔널 브랜드 겨울상품 판매

광주지역 백화점 업계가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아 일제히 올해 첫 정기세일에 돌입했다.
3일 (주)광주신세계(총괄임원 최민도)에 따르면 광주신세계는 오는 21일까지 겨울 인기장르 대형행사가 함께 진행되는 신년 정기세일 행사에 들어간다.
이번 신년 세일은 ‘캐시미어&밍크 소품 특집전’과 ‘모피·엘레강스 특집전’, ‘영캐 주얼 패딩·코트 특집전’, ‘아우터 인기가품·아우터 특집전’ 등 겨울철 인기가 많은 아우터 장르의 대형행사가 열린다.
여기에 프리미엄 리빙페어도 개최되며 아우터 장르 및 리빙 장르의 대표 품목을 최대 65%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또 광주신세계에 입점해있는 폴로 랄프로렌, 타미힐피거, 라코스테, 헤지스, 겐(GAP), 올덴, 헨리코튼 등 1년에 단 두 번만 시즌오프 행사를 진행하는 트레디셔널(TD) 브랜드도 겨울 상품을 최대 30% 할

●롯데 광주점

420여개 브랜드 50% 할인 판매
고객 48명에 올림픽 관람·숙박권

인판매할 예정이다.
카드사 상품권 행사도 열린다. 상품권 프로모션도 진행해 오는 11일까지 신한카드로 전 장르 30만·60만·100만 이상 구매 시 구매금액의 5%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증정한다. 신세계 신한카드 구매할 경우에는 7%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증정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인철 영업기획팀장은 “예년보다 더 추운 겨울날씨 속에 롱패딩 열풍 등 패션 장르 중심으로 소비심리가 점차 깨어나고 있다”며 “겨울 인기 아우터 장르와 생활 장르 대형행사를 개최하고 카드 사는 프로모션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21일까지 올해 첫 정기세일을 진행한다. 세일 기간 여성·남성 의류, 잡화, 주방용품 등 총 420여개의 브랜드에서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지하 1층 점 행사장에서는 5일까지 겨울

머플러와 장갑 등 패션잡화 상품을 판매하며, 5일부터 10일까지는 국제모피 신년 감사 초대전을 진행한다.
유색모피, 밍크베스트, 하프베스트 등을 판매, 구두 브랜드 에스콰이어, 미스페 매장에서는 앵클부츠, 롱부츠를 10만원대에 선보인다.
9층 점 행사장에서도 새해맞이 할인행사를 연다. 4일은 주방·식기 ‘福 상품 특집전’이 준비되어 쿼텐스, 한국도자기, 삼미, 풍년, 토탈아트 등이 참여하고, 5일부터 10일까지는 신년맞이 라제리 초특가전을 연다.
특히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기념해 세일의 테마를 ‘동계올림픽’으로 맞춰 다양한 경품 행사도 준비했다.
우선 평창 동계올림픽을 응원하기 위해 총 48명의 고객에게 ‘경기관람권·숙박권’ 패키지 경품행사를 연다.
롯데카드와 ‘엘포인트(L.POINT)’로 구매한 고객 모두 참여가 가능하며, 1등(5



(주)광주신세계 8층 아동매장 압소바에서 무술년 개띠 해를 맞아 귀여운 강아지가 들어간 ‘황금개띠 출산세트’를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황금개띠 출산세트는 배냇저고리, 속싸개, 덧신으로 구성돼 있으며 가격은 9만3600원이다. <광주신세계 제공>

명)은 ‘폐회식(2매), 피겨갈라쇼 티켓(2매)’와 ‘온천 숙박권(2인실)’ 패키지를 증정한다. 2등(5명)과 3등(38명)에게도 피겨스케이팅, 스피드스케이팅 등의 경기관람

권 및 숙박권을 증정한다.
여기에 무술년 ‘황금개띠’를 맞아 프로모션까지 진행한다. 골든듀에서는 ‘황금개띠 골드바’를 새롭게 선보이고 스톤헨

지 브랜드에서는 ‘마이워시 강아지 팬던트’를 기존 28만원에서 6만원 할인된 22만원에 선보인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국내 온라인 월 매출 첫 7조 돌파...블랙프라이데이 할인 효과

지난해 11월 7조5516억

국내 업체의 온라인쇼핑 월 매출액이 처음으로 7조원을 돌파했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내 업체의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7조 5516억원으로 2016년 11월보다 21.7% 증가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7조원을 돌파한 것은 2001년 집계를 시작한 후 처음이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9월 6조 7922억원까지 상승했다.
이어 10월에는 장기 추세 연휴로 인한 배송 공백과 선(先) 구매 효과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6조 3957억원에 그치는 등 일시적으로 주춤했으나 같은 해 11월 20%대의 신장률을 회복하며 거래액 신기록을 세웠다.

작년 1~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기과 비교해 18.9% 증가했으며 11월에는 평균을 웃도는 수준으로 거래가 이뤄진 셈이다.
당국은 국내 유통업계가 인터넷을 통한 외국 업체 물품 직접 구매(직구) 증가에 맞서 대규모 할인 행사를 벌이면서 국내 업체의 온라인 거래액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손은락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장은 “중국 광군제(11월 11일)나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4일)에 손님들 뺨친 것을 우려해 국내 업체가 할인 행사를 확대했고 가전제품, 음식, 화장품 등의 매출이 많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국내 업체의 온라인쇼핑 거래액에는 국내에서 이뤄진 온라인 거래금액과 국내업체의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역직구) 금액

이 포함되며 국내 소비자의 직구 금액은 제외된다.
상품군별 증감률(전년 동기 대비)은 가전·전자·통신기기(34.4%), 음·식료품(34.4%), 가방(32.3%), 신발(31.6%), 애완용품(83.3%), 각종 서비스 및 기타(38.0%) 등이 높았다.
통계청은 전년보다 추운 날씨로 방한용 가전제품 거래가 증가하고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의 영향으로 통신기기 등의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했다.
또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정 간편식 등이 잘 팔리는 것으로 분석했다.
작년 11월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4조 7344억원으로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62.7%를 차지했으며 금액은 전년 동기보다 33.7% 증가했다. /연합뉴스

이베이코리아 올 쇼핑 키워드 ‘나심비’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올해의 쇼핑키워드로 ‘나심비’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나심비’는 가격 대비 성능을 따지는 ‘가성비’와 가격 대비 심적 만족을 따지는 ‘가심비’를 넣어 나의 만족을 위해서는 가격

에 상관없이 지갑을 여는 소비심리를 반영한 키워드라고 이베이코리아는 설명했다.
이베이코리아는 이런 추세를 반영해 올해 편의를 강조하는 소형 생활가전과 여가 생활을 위한 고가 취미용품, 맛보다 개인의 건강과 편의를 강조한 웰빙 간편식 등

이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는 ▲식기세척기 ▲로봇청소기 ▲드론 ▲액션캠 ▲공고기 ▲건강기능식품 등을 꼽았다. 또 화려함보다는 착용시 편안한 느낌이 드는 평범한 디자인의 ‘놈코어 룩’(Norm core look)과 ‘슈케어 제품’과 같이 본인의 만족감을 위한 패션소품도 인기를 끌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등산방한장갑 50%·스틱 16%↑...겨울 산행장비 판매 늘어

광주지역 이마트 매출 분석

멀티프·레깅스도 잘 나가

겨울철 산행에 앞서 안전용품과 방한 용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3일 광주지역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2일까지 매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등산용품의 매출이 51.7%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스틱,아이젠, 랜턴 같은 안전용품도 11.7% 증가했다.

항목별 매출신장율은 등산방한장갑 49.4%, 등산스틱 15.8%, 아이젠 12.5%, 헤드랜턴 7.8% 등이다.
최근 도심에서 가까운 곳으로 산행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휴대 및 착용이 간편한 등산용 소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산방한장갑의 경우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한 터치원단을 사용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안전용품 인기에 못지 않게 겨울철 바람과 추위를 막아주는 보온용품들도 인기다.
보온과 땀의 흡습성이 뛰어난 목부터

입까지 끌어올려 머플러와 마스크, 두건 용도로 착용할 수 있는 멀티프의 매출은 22.3% 신장했고, 레깅스 7.3%, 핫팩 5.1%, 보온병 3.5%도 꾸준히 신장하고 있는 추세다.
이마트 관계자는 “예전에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산행에 나서는 사람도 많았지만 요즘들어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며 “산행 인구도 증가하면서 안전용품과 보온용품의 매출도 덩달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이마트, 오늘부터 ‘습식숙성 삼겹살’ 판매

육질 부드럽고 맛 고소

이마트가 오는 4일부터 ‘에이징(습식숙성) 삼겹살’을 선보인다.
가격은 100g에 1800원으로 일반 삼겹살 가격(100g당 1680원)과 큰 차이가 없어 숙성 삼겹살 판매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이마트는 예상했다.
숙성 삼겹살은 일반 삼겹살보다 육질

이 부드럽고 풍미가 뛰어나며 고소한 맛이 특징이다.
숙성은 크게 정육을 공기 중에 노출해 수분을 증발시키며 숙성하는 드라이에이징(건조숙성) 방식과 진공으로 포장해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한 상태에서 0~1도의 저온에서 냉장 숙성하는 에이징 방식으로 분류된다.
에이징은 드라이에이징과 달리 표면

의 수축과 변질이 없는 탓에 버리는 부분이 없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지난 2016년 말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한 선보인 숙성 한우등심은 이마트 전체 등심 매출의 절반을 넘었으며, 작년 12월에는 전체 한우 매출 중 ‘에이징 등심’이 판매 1위를 차지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마트는 10일까지 ‘에이징 삼겹살’ 출시 기념으로 행사 카드로 결제할 경우 100g당 1440원에 판매하는 행사를 한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속옷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를 받은 유니크한 디자인과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사용 및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효과)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건강을 생각한 속옷입니다.

아모리이온

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이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 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 아모르

러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

대표전화 1588-2219